

작년 쌀 생산 14.3% 줄었다

논농사 포기 잇따라 1조 4천억 감소... 농림업 생산액 36조 2,729억원

농림부 집계 결과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은 36조2천729억원으로 전년보다 2.7%인 1조1577억원 감소했다.

농림부는 4일 지난해 각 품목별 생산량에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을 곱해 농림업 생산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농림업 생산액 중 농업 생산액은 35조889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3.0%인 1조666억원 감소한 데 비해 임업은 1조1천840억원으로 2004년보다 4.5%인

509억원 증가했다.

농업부문 중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 11조2천339억원보다 13.1%(1조4천650억원) 감소한 9조7천38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비곡은 지난해 9조9천631억원에서 8조5천368억원으로 무려 14.3%(1조4천263억원) 줄어들었으나 두류는 4천881억원에서 5천258억원으로 7.7%(377억원) 증가했다. 이는 쌀개방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논농사를 포기하고 단위면적당 소출이 높은 논농사로 전환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과실은 4.8% 증가한 3조817억원이었

지만 채소는 9.8% 줄어든 6조9천186억원이었다. 특히 채소 가운데 시설재배가 전년 3천290억원에서 1천844억원으로 44%나 감소했다.

농업부문에 포함돼 있는 축산업 생산액은 11조7천672억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 가운데 식량작물은 26.8%, 채소부문은 19.1%, 과실부문은 8.5%의 비중을 각각 나타냈다.

생산액 순위 5대 품목은 미국·돼지·한육우·우유·닭으로 조류독감의 여파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5위였던 계란이 6위로 밀려난

대신 6위였던 닭이 5위로 올라섰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태국 등에서 발생했던 조류독감의 여파로 닭과 오리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닭·오리 생산이 늘었다”면서 “반면 중국에서 김치수입이 늘면서 견고추와 마늘 등 김치용 양념 생산과 판매는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닭과 오리는 각각 전년 7위, 18위에서 지난해 5위와 10위로 올라선 반면, 견고추와 마늘은 전년의 6위, 11위에서 지난해 각각 8위와 17위로 떨어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장하성 펀드’ 효과는? 시장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 외국계 펀드와 ‘차별화’ 관전

요즘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일명 ‘장하성 펀드’다.

지난달 23일 대한화섬 주식 5.15%를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실체를 드러낸 장하성 펀드는 4일 대한화섬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 사실상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섰다.

장하성 펀드의 영향으로 이 펀드가 직접 매입한 대한화섬은 물론 대한화섬의 모그룹인 태광산업 주가가 단기간에 100%이상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가가치에 비해 자산가치가 높은 자산 추가 테마를 형성해 주목받고 있다.

장하성 펀드의 정확한 이름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 :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다. 장하성 펀드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비판해 온 고려대 장하성교수가 이 펀드의 투자자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1천300억원을 모아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등록된 해외펀드로 운용은 외국계인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가 맡고 있다. 장교수는 연말까지 펀드규모를 2천억원까지 늘려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하성 펀드를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된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즉 사회적 책임에 봉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도덕적·지환경 기업에 투자대상이다.

장 펀드에 대해 시장에는 수익극대화를 노린 외국계 펀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최초의 SRI펀드로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나윤택 호남지역 담당 상무는 “장 펀드는 지배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SRI펀드의 투자취지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 구성이 대부분 외국계이고 해외펀드라는 점에서 장 교수의 펀드 운용 권한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장기 가치투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국계 경우 지배구조 펀드들이 주주행동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이루면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 장 교수의 호언처럼 장기투자자가 가능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미국 ‘모니터 부문 ARC’ 상 삼성전자 4년 연속 수상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의 정보기술 격주간지 ‘VAR(Value Added Reseller) 비즈니스’지가 수여하는 ‘모니터 부문 ARC(Annual Report Card)’ 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ARC 상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19개 제품과 인터넷 서버를 비롯한 서비스 영역에 걸쳐, 분야 별로 5천명 이상의 전문가 및 기관들이 설문조사로 수상 기업을 뽑는다.

삼성전자 북미총괄 박용진 상무는 “이번 ARC 4년 연속 수상을 통해 현지 소비자용 모니터 시장 1위 자리를 굳히고, 기업 고객에게도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의 삼성 울트라 휴대폰
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된 세미 유라시아 전시회에 참가한 삼성전자 도우미들이 부스 앞에서 울트라 휴대폰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채용 인원 올 2만3,080 명 작년보다 2.9% 늘어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삼성그룹, LG그룹 등 10대 그룹의 채용규모를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사들은 올해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2만3천8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1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인원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3% 감소한 1만1천690명으로 집계됐으며 그룹별 연간 채용인원은 ▲삼성그룹 8천500명 ▲SK그룹 1천100명 ▲롯데그룹 1천명 ▲한화그룹 900명 등이 될 것으로 인크루트는 전망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반기에는 활발하게 채용이 진행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채용인원은 작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외환 보유액 증가세 지속 8월 2천270억2천만 달러

8월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2천270억2천만 달러로 한 달 사이에 13억1천만달러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4일 발표했다.

올 들어 외환 보유액은 6월에 3억3천만달러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미국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등 기타 통화 표시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커진 데다 미국 국제이자수입에 따른 운용 수익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 보유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1천900억1천만달러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예치금 366억1천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 2억8천만달러, 금 7천만달러 등의 순이다.

주요 국가별 외환 보유액(7월말 기준)은 중국이 9천41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8천719억달러, 러시아 2천656억달러, 대만 2천604억달러, 한국 2천257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 4~7월 중 사고율 높아져

4~7월 중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손보사들의 손해율도 급속히 나빠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7월 중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5.9%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2% 포인트 상승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9%로 6.0% 포인트 올라갔다.

금감원은 손해율이 높아진 데 대해 경과보험료가 작년 동기 대비 2.9%(716억원)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사고건수 증가로 발생손해액은 11.5%(2천62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부화재는 7월 중 손해율이 90%를 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상승했으며 이 밖에도 온라인 전입사를 제외한 흥국생용화재와 신동아화재, LIG손보 등의 손해율도 80%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최근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 동안 손해율이 양호했던 서울 등 대도시 사고율은 높아지고 손해율 불평지역이었던 충남과 전남, 경북 등의 사고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보아 향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가임여성 노령화 심각 15~49세 여성 중 40대가 30%

15~49세의 가임여성 가운데 40대가 10년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나 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임여성의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5~10년 뒤 주력 출산연령층이 되는 15~24세 여성은 10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줄면서 비중이 25% 아래로 떨어졌고 특히 10대 후반의 가임여성 수는 처음으로 150만 명을 밑돌았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5~10년뒤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연령층이 되는 현재의 10대 후반~20대 초반 여성의 감소로 아이 울음 소리 듣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5~49세 가임여성 1천367만명 중 40세 이상은 408만6천명으로 29.9%에 달했다.

10년전인 1995년 가임여성 1천312만2천명 중 40세 이상이 261만1천명으로 19.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졌고 수는 56.5%나 늘어났다.

산모의 연령구성에서 40세 이상이 지난해 1.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아이를 거의 낳지 않는 연령대의 가임여성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연합뉴스

외국인들 한국시장서 지갑 ‘뽕뽕’

올 소비지출 1조9,244억 9년만에 최저 수준 기록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관광 등으로 쓰는 돈의 규모가 계속 감소하면서 9년만엔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소비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비거주자의 국내 소비지출액은 1조9천244억원(실질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는 의외로 직전인 1997년 상반기의 1조4천596억원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로 인해 아시아 일대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2003년 상반기 1조9천919억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비거주자의 국내 소비지출이 이처럼

부진을 보인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시장에서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지만 관광과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국내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거주자의 국외 소비지출은 7조6천59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4%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거주자의 국외 소비는 해외 여행경비와 유학·연수비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비거주자의 국내 소비지출 제외)에서 국외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중 4.3%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차세대 광디스크 ‘블루레이’ HD DVD보다 못해”

미국 DVD 사이트 ‘혹평’

차세대 광디스크 표준 경쟁에서 성능 우위를 자랑하던 블루레이(Blu-ray)가 초반전에서 경쟁자인 HD DVD보다 못하다는 평을 듣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해외에서 발매된 초기 블루레이 영화 타이틀이 HD DVD에 비해 화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미국 DVD 전문 사이트 ‘하이 데프 다이제스트(www.highdefdigest.com)’의 평론가

피터 브레이크는 블루레이와 HD DVD로 발매된 동일 타이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블루레이가 (영상) 압축 상의 흠집(Compression Artifacts), 어두운 화면 등 결점들이 드러나 HD DVD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블루레이는 소니가 개발한 기술로 파나소닉, 필립스, 델 등 제조사의 지지를 얻고 있다. 도시바가 고안한 HD DVD에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참여 중이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동화사	관리부/업무부/사업부/물류배차/전화교육상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2-514-2451
yes금융정보	금융상품 홍보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06	062-383-5407
텔레서비스(주)	하나로티앤이 광고고객센터 해악 인바운드상담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7	02-2163-4125
뉴에이스(주)	하나로텔레콤 광주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7	031-267-1861
남영건설(주)	SOC사업팀/공통업무/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08	062-351-3700
모스타이(주)	서비스 엔지니어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2-3472-9981
대림수산(주)	광주지역 영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62-525-0937
(주)유로넷	[주5일]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11	02-780-9595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1	010-6654-3480
시스템정보통신	정규직 웹디자인어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11	062-225-2112
대호기계	경리 및 회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525-0937
(주)창일	관리팀, 생산팀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953-7952
(주)미래티앤씨	일반사무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372-7856
(주)유한테크	자동차부품조립, 물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3	062-953-434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목포 흥익저축은행 주총 대표이사 송형민씨 선임

목포 흥익저축은행이 지난달 29일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송형민 상임감사를 대표이사로, 광동현 상무이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송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27년, 흥익저축은행 상임감사로 6년 재직하는 등 전문 금융경영인이다.

또 광 상임감사는 25년간 흥익에서 근무해오면서 여·수신업무에 대외적으로 활동

해은 '홍익맨'이다. 오는 10월 23일 창립 34주년을 맞는 흥익저축은행은 목포 토박이 저축은행으로 광주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여·수신합계 1조2천300억원, 총자산 6천934억원, 자기자본 354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달성, 동업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